# '재미'만이 남아있는 한국영화

## 요즘 문화 어떻게 볼 것인가?

〈完〉 대중영상예술

## —한국영화가 보여주는 사회현실

문학이나 미술이 그렇듯이 영화 역시 나름의 방법으로 각각의 사회현상들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그 효과에 있어서 향유자인 관객들에게 여타의 예술장르에서 보다 거대한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영상과 언어로 풀어지는 영화의 기호들은 영화가 생산되는 당시의 사회상들을 기록하기에 충실하며, 되돌려 그것을 문화라는 또다른 이름으로 관객들에게 던지기도 한다.

올해 4월 '서편제'라는 우리 영화 한편이 개봉되었다. 임권택 감독 스스로 평가하듯 그의 작품계보에서 최고의 자리에 놓일만한 역작임이 분명하다. 이 영화는 한동안 '판소리'라는 우리문화를 외면해 온 관객들에게 새롭게 귀를 트여주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 영화에 사용된 음악들은 음반이 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개봉 2개월이 넘어선 현재까지 시내 중심가의 극장에서 관객동원 20만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서편제'의 예는 영화가 사회에 미친 아주 작은 변화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영화속의 사회는 어떨까. 아직까지 우리영화라는 것은 '운동'이라는 단어를 붙이기 부끄러울 정도로 열악한 수준이고, 드러나는 현상에서 뿐 아니라 영화가 담고 있는 내용과 형식의 측면에서도 빈번히 관객의 기대를 배반했을 것이다.

80년대 후반 민주화의 얼기가 터져나오던 시기, 일반 대중에게 상영되는 35미리 극영화 부분도 변화의 몸살을 앓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대학시절 학생운동의 경험이 있었던 장선우 감독이나 박광수 감독 등의 충무로 진출은 그들의 초기 작품에서 보여지듯 진지한 현실인식들을 담아냈다.

박광수 감독의 '칠수와 만수'는 고등학교의 간판을 그리는 두 젊은이가 사회로부터 소외돼 겪는 아픔을 담고 있었으며, 장선우 감독의 '우묵배미의 사랑'은 미성사와 재단사인 두 남녀를 중심으로 변두리 노동자들의 사랑과 갈등을 절절하게 그려내고 있다.

또한 김유진 감독의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는 동명의 소설을 스크린에 옮긴 작품으로, 실로 간만에 나타난 여성문제에 관한 영화였다. 이런 식의 제도권 영화 내에서의 '현실반영'은 그 성과야 어떻든 '베를린 리포트', '그들도 우리처럼'등으로 이어졌다. 반면 비제도권 영화라 불리우는 영화운동의 진영에서는 광주항쟁을 소재로 한 '오, 꿈의 나라'를 시작으로 장산곶매의 역작 '파업전야', 학생운동을 소재로 한 '어머니, 당신의 아들'등의 작품들이 등장하며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까지 '영화속에 사회현실을 반영하기'에 충실했다.

그러나 이 시기 이후 현재까지 우리영화계(제도권과 비제도권을 포함하는)는 짐짓 현실을 외면하기로 작정이나 한듯의 우리영화가 제작되고 있으며, 이는 해마다 그 수치가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다.

영화속에 오늘의 현실을 바로 담아내기를 바라기 어전에 우리영화계는 당장 그 존립이 가능할까를 의심할 지경에 이른 것이다.

우리영화의 현실을 어렵게 하는 것에는 외국영화사의 직접배급 외에도 스크린쿼터 해지와 프린트 벌수 제한 이라는 상황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게 된다.

한 영화를 전국 극장에서 동시에 상영함으로써 영화의 흐름을 빠르게 해 결과적으로 우리영화를 활성화시킨다는 긍정적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런 경우 극장업자나 외국영화 수입업자들의 스크린쿼터 해지압력은 강도가 높아질것이고 한국영화는 설 땅을 잃게 될 것이다.

◇사진은 영화 「서편제」중 한장면

## 치열한 현실인식 대신 감각적인 즐거움 지향

## 스크린 쿼터·프린트 벌수 제한 철회도 문제돼

조용하다. 비제도권 영화들은 이제까지 누적돼왔던 16미리 영화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으며, 제도권 영화들 역시 영화산업 환경변화로 인해 그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전반적인 우리영화계가 그 활기를 잃어가기 시작한 것에는 89년부터 실시된 외국영화사의 직접배급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88년에 체결된 한·미 영화협상 이후 외국의 메이저 영화사들은 국내에 지사를 두고 자신들의 영화를 직접배급했다. 우리영화 제작 보다는 외화 수입에 의존해 오던 우리 영화시장은 그 퇴락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고, 이는 영화인들의 생존권과 결부되어 당장 우리영화계의 현안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결과는 비참하게도 UIP사의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가 시내 5개 개봉관에서 1백68만명이라는 경이적인 관객동원을 이뤄내며 우리영화계의 현실을 암담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현재는 1년에 1백편 남짓 두가지 커다란 압박이 있다. 1년에 1백40일로 정해진 우리영화 의무상영을 규정한 스크린쿼터 제도가 멀지않아 극장주들의 불만과 미국의 압력으로 해지되리란 전망이 그것이다. 사실상 현재도 시내 주요 개봉관을 제외하고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이 제도는 그나마 우리영화 제작을 위한 마지막 보루로 지켜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스크린쿼터와 함께 현재 우리영화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현안은 오는 94년부터 실시될 프린트 벌수 제한의 폐지다. 이제껏 한 영화에 대해 16개 극장에서만 동시에 개봉이 가능했던 이 제도가 없어지고 나면, 극장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전국 7백여 극장에서 동시에 한 영화를 상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모르긴 해도 한국영화를 상영하기 위해 7백개의 프린트를 만들어 달라는 극장은 없겠지만 '사랑과 영혼', '보디가드'정도의 영화라면 7백개의 프린트가 만들어져 전국의 극장에서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우리영화속에 사회현실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살피기 이전에 과연 우리영화가 계속적으로 제작될 수 있는가가 더욱 큰 관건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93년 현재의 한국영화에는 어떤 모습의 우리가 반영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자. 92년부터 두드러지기 시작한 '영화기획의 전문화' 열기는 한국영화의 흐름을 크게 바꿔놓고 있다. 전문적으로 영화 기획만을 해왔던 '신씨네'가 익영영화사와 함께 내놓은 '결혼 이야기'라는 작품은 기획과 연출이 맞아떨어지면서 52만명이라는 관객동원에 성공했다.

로맨틱 코미디로 구분되는 이 영화는 영화를 관람한 관객수가 대변해 주듯 일반 관객들의 욕구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영화다. 신혼초의 부부가 자잘한 일상의 대립으로 인해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다는 이야기로 심각하거나 어려운 것은 완전히 배제시킨채 가볍고 즐거운 것들만 보여주고 들려준다.

기획의 전문화라는 것이 대중의 요구를 재빨리 간파하고 그것들에 영합해 과자를 만들어내듯 영화를 제작해내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우리영화는 '결혼 이야기'의 아류들을 만들어내기에 바쁘다. 그나마 '그들도 우리처럼'에서 만날 수 있었던 현실인식의 시도는 자취를 감추고, '운동성'이라 불렸던 이념의 흔적은 좀처럼 찾을 수 없다. 대신에 감각적이고 단순화된 재미들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다.

'결혼 이야기' 이후 제작되었던 강우석 감독의 '미스터 맘마'나 이현승 감독의 '그대만의 블루', 박광우 감독의 '사랑의 중합병원', 장길수 감독의 '웨스턴 애비뉴'등 어디에서도 이전의 건강한 운동성은 찾을 수 없다.

이것은 현재 제작 중이거나 6, 7월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들도 마찬가지다. 올해 6월과 7월을 기해 개봉을 준비중인 큼직한 우리영화는 종4편 정도를 꼽을 수 있다. '결혼 이야기'의 김의석 감독이 준비중인 '그 여자, 그남자', '깊의 전쟁'의 김영빈 감독 작품인 '비상구가 없다', 키드무비인 '키드킵', 오석근 감독의 '백한번째 프로포즈'가 그것이다.

김영빈 감독의 '비상구가 없다'는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던 '압구정동'을 소재로 한 영화로 이전의 압구정동 영화—'바람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아한다', '오렌지 나라'등과 함께 요즘 젊은이들의 세태와 갈등을 다루고 있는 영화다.

이준익 감독의 '키드킵'은 비디오 시장의 활기와 함께 아동용 비디오의 수요가 증폭하자 기획된 영화다. 맥컬리 컬킨이 주연한 할리우드의 '나홀로 집에'처럼 어린 악동들이 택화점에 침입한 악당들을 물리친다는 이야기의 이 영화는 아동문화에 관한 사회적인 관심을 반영한 작품이다.

개봉을 앞두고 있는 이러한 영화들에서 보여지듯 93년 현재의 우리영화는 이전에 가져왔던 이념에 대한 갈구나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 보다 감각적이고 현상적인 고침에 만족하는듯 보여진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데 있어서도 할리우드 영화를 연상시키는 참신한 기획을 선보이고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한국영화가 무엇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보다는 제속적으로 제작될 수 있는가의 문제다. 그리고 그것을 주목하고 지켜봐야 하는 것은 관객의 몫이다.

김 경 실

〈비디오 플라자 기자〉

## 김단시론

전 수 용

〈외대교수·영문학〉

# '죠세프 콘라드'의 최상의 선택

20세기 영국소설의 대가를 꼽으라고 하면, 아마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작가 중에 폴란드 태생의 죠세프 콘라드가 있다. 그는 정치적, 역사적 역경이 점철된, 그리고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분할되어 속국으로 있었던 나라 폴란드의 러시아령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비슷한 경험을 가진 한국인들에게 많은 호소력을 가지는 작가이다.

그의 아버지는 몰락한 귀족의 후예로서 시적 재능을 가진 재담가였으며, 진보적 성향의 독립운동가이기도 했다. 그의 집안이 몰락하게 된 것도 집안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가담한 벌로써 세습영지를 몰수당한 때문이었다. 콘라드가 네살되던 해 그의 아버지는 러시아에 대한 항거모의를 주도한 죄로 투옥되었다가 러시아로 유배된다. 그의 이러한배경때문에, 그는 작가가 된 후에도 역사적 상황속에서 인간활동의 의미나 유효성에 대하여, 회의적 내지 애증이 엇갈린 시각을 가지게 된다. 무력과 권력을 가진 러시아 앞에서 애국정신 한가지로 무장을 하고 봉기를 기도하였다가 참담하게 희생당한 그의 가족에 비하여 희생이 너무 크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의 이러한 회의는 비단 입제에 대한 항거에만 국한되지 않고, 진보를 향한 인간 활동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었다. 서구의 아프리카 식민지 경영을 배경으로 하는 '어둠의 속'에서 그는 "야만인들을 문명화시킨다"는 식민지 경영의 이상이 "금수같은 놈들을 올챙해 버린다"는 증오섞인 행동원리로 변질하는 것을 보여준다. 라틴 아메리카의 신식민주의를 배경으로 하는 '노스 브로모'라는 작품에서는 물질적 번영을 통해 문명화된 복지사회를 이루어 보겠다는 영국계 인물인 찰스 굴드의 이상이 부패한 정치와의 어쩔 수 없는 타협을 견디다 못해, 결국은 자신의 금권으로 지지되는 정부를 세우는 쿠데타로, 또 그 쿠데타를 전복하려는 시도와, 그에 반대하는 분리 독립국의 탄생으로 발전된다. 그런 과정을 거쳐 이룩된 사회는 그리나 애초에 굴드가 꿈꾸던 복지 사회와는 달리, 계층간의 격차와 불신으로 새로운 와해의 가능성을 안고 있는 사회이다.

물론 우리는 애초에 제국의 경영이라는가 물질적 번영의 추구라든가 하는 이상은 그 실정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콘라드에게 있어서, 제국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동세계 전체에 대한 은유로 볼 수 있다. 건설과 진보, 발전으로 대표되는 이 행동에의 충동을 콘라드는 '승리'라는 소설에서 "야담적 충동"이라 이름하여, 인간의 원초적이고 도 영구한 충동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 야담적 충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인간은 완강하고도 복잡한 현실의 저항에 부딪쳐, 자신이 이상적으로 설정하였던 목표가 명료한 사고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콘라드는 못박는다. 모든 위대한 행동가들의 행동은 "따스한 정신적 안개" 즉 흐릿한 사고력 속에서 잉태된다고 그는 말한다. 현실과 이상의 편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믿는 바를 완강하게 밀고 나가며, 자신의 행동지침의 모순이 드러날 때도 회의 없이 그것을 믿는 용기가 행동가를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투명한 사고와, 모순과 부패의 가능성에 노출된 행동의 세계가 싫다고 하여, 인간은 완전히 냉업하고 맑고 명료한 사고의 세계에 머무를 수만도 없는 존재임을 콘라드는 보여준다. 행동세계로부터의 완전한 유리를 시도하는 '승리'의 하이스트란 인물에게도 외부세계는 가차없이 침입해 들어와서 그의 세계를 파괴하고 만다. 그가 세상과 거리를 두고 은닉하려는 노력은 그의 신비감을 가중시키고 그가 숨겨진 재화를 혼자 지키고 있다는 헛소문을 낳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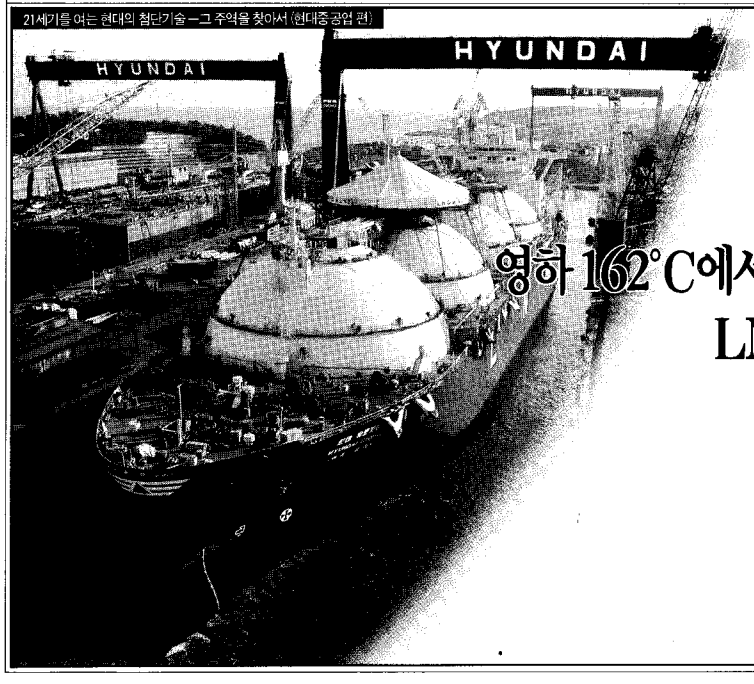
행동을 하다보면 인간은 손을 더럽힐 수밖에 없고, 행동을 거부하여도 현실은 밀려들어와 그를 삼켜버린다. 정말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것이 그가 보는 인생의 모습이다.

그러면, 인간에게 가능한 최상의 선택이란 어떤것인가? 그에대한 답은 '태풍'이라는 그의 중편에서 찾을 수가 있다. 동남아에서 쿨리로 일하던 중국인들을 잔뜩 싣고 중국으로 귀향하는 난산호는 격심한 태풍에 시달리게 되는데, 둔감하나 용맹한 선장의 지휘 덕분으로 무사히 태풍을 뚫고 항해를 마친다. 태풍에 배가 시달리는 동안, 3년 징역의 허리가 휘는 노동으로 번 전재산을 담은 쿨리들의 짐궤짝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면서 열려져, 쿨리들이 벌은 금화가 쏟아져 굴러다니게 된다. 3년간의 피땀으로 번 금화들을 이렇게 허무하게 잃게 될 전망에 혼안이 된 쿨리들은 필사적으로 금화를 잡으려 몰려다니게 된다. 밖에서는 태풍의 위력이 안에서는 쿨리들의 난투가 배를 위태롭게 한다. 선장은 선원들을 시켜 다소간의 폭력을 사용하여 쿨리들을 진정시키고, 태풍과도 싸운다. 배가 항구에 들어온 후에 그는 쏟아진 금화들을 다 모아놓고, 쿨리들이 모두 무일푼으로 시작하여 삼년간 노동을 하였으므로, 똑같이 금화 세닢씩을 나누어 주면 공평할 것이라는 판정을 내린다. 쿨리들에게 자신들이 잃은 돈의 액수를 말하라고 하면, 그 액수의 합이 남아있는 금화의 합보다 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현명한 듯 하면서도 둔탁한 판정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얽히고 설킨 현실의 압력 속에서 행동하고, 진보하고, 발전하고, 혹은 요즘의 한국 사회에서처럼 개혁을 수행하려면, 우리는 난산호의 맥퀴 선장같이 둔탁한 심판을 내려 정의를 실현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콘라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는 글과 사유라는 두 가지 도구가 있다. 글과 사유는 행동과 이상 사이의 오차의 간격을 최소한으로 좁히는 역할을 한다.

개혁의 수술을 가할 때에도, 우리는 가장 심하게 부패한 자가 가장 중한 벌을 받는지, 혹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순진파가 오히려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개인적 원한이 개혁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개혁의 수술이 전신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지는 않은지를 경계하며, 조심스레 발걸음을 떼어야 할 것 같다.


21세기를 여는 현대의 첨단기술 —그 주역을 찾아서 (현대중공업 편)




영하 162°C에서 피어난 선박기술의 꽃
LNG선 건조에 성공하다!

현대중공업 선박해양 연구팀

영하 162°C에서 냉각액화되는 무공해'청정 에너지'로 부각되고 있는 액화 천연가스 LNG ——
이 초저온 상태의 LNG 운반선은 설계에서 건조까지 조선공업 최고수준의 기술과 노하우를 요합니다.

고부가가치이기 때문에 극심했던 경쟁국들의 견제, 공장문만 여닫아도 용접결함이 생긴 정도로 예민한 알루미늄 용접, 티끌만한 먼지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살복더위에도 문을 꼭꼭 닫고, 다시 방풍벽 안을 천막과 고무로 쳐 쌓 작업해야 했던 탱크제작 등등…

세계정상의 기술에 이렇듯 숱한 노력과 정성이 어우러져 비로소 진수할 수 있었던 선박의 꽃 LNG 1호선 ——
10년 연속 'WORLD BEST SHIP'에 선정되어 온 현대중공업은 이번 개가로 세계 조일류 조선소로서의 명성과 기술력을 다시 한번 과시하고, 21세기를 전후 LNG 수요의 팽창과 더불어 급증할 LNG선 수출에 청신호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미 완성단계에 있는 장거리 고속수중익 쌍동 여객선 등 고기술, 고부가가치 선박의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現代